

다산포럼

고정관념과 세대 차이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9월의 서늘한 가을바람이 반갑기만 하다. 에어컨 바람으로 폭염을 견뎌 냈던 일상이 보다 트인 공간으로 변하는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 인류 산업 발전이 몰고 온 지구 온난화에도 불구하고 계절 변화가 지속되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그런 길목에서 최근 접한 지난해 출산율 관련 정보는 세상 변화의 세대 차를 절감하게 한다.

동네에서 아이들보다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마주치는 일상 풍경도 이런 새삼스럽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갑자기 불어닥친 현상도 아니다. 그런데도 지난 28일 발표된 통계청의 2018년 출생 통계 확정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98명이다. 즉 0명대로 2025년 1명대 회복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예상인데, 그간 시행된 인구 증가 정책을 돌아보게 만든다.

2007년 이후 어떤 정부에서건 출산 장려 정책은 13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저출산 기록을 갱신하는 모순된 결과를 보여 줄 뿐이다. 그런 모순된 상황의 저변에는 농경시대 결혼, 가족 제도를 전통으로 고수하는 고정관념과 그에 따른 세대별 인식 차이에 주목하게 된다.

그간 출산 장려 정책은 출산과 육아 관련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출산 축하금과 양육 지원금, 임신부 고용 사업장에 고용 안정 및 대체 인력 지원 제도도 있다. 대부분 지원 정책들이 결혼을 전제로 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보인다. '비혼'(결혼은 필수 아닌 선택) 선호, 동거 찬성 비율 증가, 심지어 연애도 기피하는 20·30대 젊은 세대 인식 변화가 고려되지 않은 고정관념이 드러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사회지표 조사 가운데 '결혼이 필수적인가'란 질문에 대한 반응은 현재 출산율 상황의 잠재적 원인을 짐작하게 한다. 젊은 세대에 속하는 비혼자 중에서 남성 36%, 여성 22%만이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실이 바로 그런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결혼에 대한 성별·세대별 인식 차이는 수많은 영화에서도 드라마 모티브로 작동되어 왔다. 한국 멜로드라마 대표적인 '미유' 다시 한 번 시리즈에서 유부남을 사랑한 젊은 여성과 외도로 고뇌하는 남성이 혼외 출산한 남자아이를 취학시키기 위한 법적 신고를 두고 갈등을 겪는다.

한국영화사 수업 시간에 2000년대 20대 학생들과 이 영화를 다시 보노라면, 약속을 정당화하는 이상한 연애 코미디로 해석하는 반응이 압도적이다. 버림받아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의존적인 여성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세대 차이를 보여 주는 반응이다. 그들은 도시 집중 및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정책에 따라 '돌만 낳아 잘 기르자'를 실행한 586세대, 즉 돈 벌어 오는 근면한 아버

지, 집안 살림에 헌신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라난 세대이기도 하다.

인간의 내면적 삶, 특히 연애와 결혼을 둘러싼 성별·세대별 차이를 섬세하게 그려 내는 안목에서 일가를 이룬 샘 멘데스 감독의 '레볼루션리 로드'(2008)는 참조할 만한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영화는 첫눈에 반해 결혼한 부부의 일반적인 삶을 그리는데... 세월이 지나 승승장구하는 남편과는 달리 '경단녀'(결혼과 육아 탓으로 퇴사해 직장경력에 단절된 여성)로 집안에 갇혀 허무한 삶을 살고 있던 아내의 어느 날 이렇게 절규한다.

"모든 존재는 특별해. ... 변화가 필요해. 이렇게 인생을 그냥 보낼 순 없어"라고. 이 영화를 보노라면, 1950년대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한 허구지만 2019년 인구 재난 사태에 직면한 한국 사회 현실에 공명하는 메시지가 감지되기도 한다. 불안한 경제력에 흔들리는 가운데 성 평등 의식을 가진 젊은 세대를 포용하며 1인 가구 대세 속에서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을 즐기는 율로(YOLO) 현상을 전통적 가족 개념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고

송가인 전성시대,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고재경  
배화여대 명예교수·수필가

흙 속에 파묻혀 있던 천연 진주 송가인의 노래를 들으면 심장이 터질 듯하다. 더 나아가 듣는 이의 가슴 내면에 켜켜이 묵은 추억 조각들이 온몸과 마음을 휘감는다. 혼이 담긴 맛깔스런 노래로 단번에 중장년층의 아이돌로 거듭난 송가인이다. 이제는 미래의 꿈인 '여자 나혼자'가 되기 위해 그녀가 풀어야 할 숙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이다.

첫째, 본인의 히트곡 제조이다. 현재 송가인은 자신의 곡 중에서 국민 히트곡이 아직 없다. 그녀가 열창한 노래의 대부분은 과거 시간 속에 잊혀졌던 타인의 트로트 곡들이다. 이러한 흘러간 곡들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 적극적으로 환생시킨 인물이 송가인이다. 이런 점에서 그녀가 넘어야 할 산은 다름 아닌 국민 애창 히트곡 발굴이다. 유명 가수자 자신의 히트곡이 없는 것은 샘물 없는 사막과 같이 치명적이다. 그녀는 자신의 현재 위상에 걸맞은 곡을 시일이 걸려도 신중히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 그 곡의 노랫말은 세월이 흘러도 전 세대의 감성을 주무르듯 달래주는 곡이려야 불후의 명곡이 된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원탑 트로트 가수로 우뚝 설 날이 멀지 않은 송가인이다. 아직도 그녀 노래를 안 들은 사람이 있겠지만 한 번만 들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만큼 그녀 노래는 대중의 감성을 뽐아들이는 중독성을 지니고 있다. 송가인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자신의 히트곡 제조이다.

둘째, 무명 시절의 초심 유지이다. 개구리가 울창이 적 생각 못하면 큰 코 다친다. 돈이 없어 비녀를 만들어 팔아야 했던 경제적 궁핍 시절의 송가인을 기억한다. 화장실에서 환복해야 했던 힘든 무

명 시절을 늘 생각해야 한다. 자만은 금물이다. 어느 날 누군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 갑자기 스타덤에 오른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쭐대기 쉽다. 잘난 척 하늘의 별이라도 딛 듯이 으스스대면 무명 시절의 초심과 뜨거운 열정을 항상 잃지 말기를 기대한다. 훌륭한 인성을 바탕으로 노래하는 가인(歌人)의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절세가인(絶世佳人)의 꾸밈없는 진심을 일반 대중은 보고 싶어 한다. 바로 이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진정한 명품 팬심이 아닐까 싶다.

셋째, 글로벌 힐링 신인류 개척이다. 전근대 시대 한국은 외국을 통한 외래 대중 문화의 주요 수입국이었다. 하지만 포스트모던 시대 우리나라는 한류를 통한

한국 문화 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K-드라마, K-영화, 그리고 K-팝 등의 글로벌 인기로 한류의 확산은 보편적 현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K-트로트가 출자이다. 가장 한국적인 정서와 영혼을 담은 노래가 세계인의 심금을 울릴 수 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렇다면 K-트로트를 통한 한류 해의 개척에 송가인이 안성맞춤이다. 송가인의 노래 실력은 영국 출신의 세계적 팝가수 아델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맛, 멋, 끼, 그리고 격을 모두 겸비한 송가인이다. 그녀는 급변하는 대중가요 시장의 추종자(Market Follower)가 아니라 선도적 리더(Market Leader)가 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가장 한국적인 자신의 노래를 통해 세계인의 삶에 지지고 아픈 영혼에 회복과 치유의 오아시스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 흥을 넘나드는 송가인이 부르는 노래에는 어떠한 종교보다 더 깊고 고결한 치유의 판타지가 형형색색 그림물감처럼 흩뿌려져 있기 때문이다.

청춘특·특

‘노 재팬’(NO JAPAN) 이후를 꿈꿔 보다



박은비  
동신대 식품영양학과 2학년

다섯 살, 여섯 살 조카들이 요즘 가장 빠져 있는 애니메이션은 '영딩이 탐정'이다. 부모님 세대를 대표하는 명탐정 '셜록 홈즈'였고, 우리 세대가 '명탐정 코난'이라면 요즘 아이들에게 최고의 탐정은 단연 '영딩이 탐정'이다.

'영딩이-영딩이-영딩이'를 반복하며 부르는 주제곡은 아이들은 물론 대학생에게도 중독성이 강하다. 더욱이 노래를 부른 그룹이 '슈퍼맨'을 외치던 '노라조'다. 흥이 넘치고 넘친다.

'영딩이 탐정'은 TV는 물론 영화, 장난감 매장, 서점까지 점령했다. 조카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순위가 '영딩이 탐정' 장난감과 책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생각지도 못했던 '영딩이 탐정'의 고향이 일본이다. 우리나라에서 '영딩이 탐정'이 인기를 얻

기 시작한 올해 초에는 그의 고향이 일본인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영딩이 탐정'은 불매를 해야 하는 '일본 것'이 됐다.

'영딩이 탐정' 장난감을 사달라는 조카들에게 "일본 꺼라 안 돼"라고 말했다니 해맑게 웃으며 "그럼 2번은?"이라고 묻는다. '일본'을 '1번'으로 알아듣는 순수함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다. 주변에는 일본 상품을 사지 않고 일본 여행을 가지 않으며 일본 것을 먹거나 입지 않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 불매 운동의 모든 원인은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 즉 우 단체에게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이 과거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정도는 알고 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 동해와 일본해 표기 문제, 전범기 사용, A급 전범들이 묻힌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와 강제 징용 문제 등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일본 여행객 수와 일본 수입자 매출은 늘어났고, 우리는 유니클로 웃을 입고 아사히 맥주를 마시며 니콘 카메라로 추억을 사진에 담았다.

왜 우리는 지금, 아니 이제 와서 더 흥

분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린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때문인가? 유니클로와 DHC 입원, 우의 성향의 일본 만화가, 극우 인사 등의 '혐한' 발언이나 망언 때문인가? 지금까지도 일본이 묻힌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와 강제 징용 문제 등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일본 여행객 수와 일본 수입자 매출은 늘어났고, 우리는 유니클로 웃을 입고 아사히 맥주를 마시며 니콘 카메라로 추억을 사진에 담았다.

우리는 지금, 아니 이제 와서 더 흥

분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린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때문인가? 유니클로와 DHC 입원, 우의 성향의 일본 만화가, 극우 인사 등의 '혐한' 발언이나 망언 때문인가? 지금까지도 일본이 묻힌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와 강제 징용 문제 등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일본 여행객 수와 일본 수입자 매출은 늘어났고, 우리는 유니클로 웃을 입고 아사히 맥주를 마시며 니콘 카메라로 추억을 사진에 담았다.

우리는 지금, 아니 이제 와서 더 흥

社說

잇단 사고사 외국인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광주·전남 산업 현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건너왔지만 힘들고 위험한 '3D 업종'에 집중 투입되면서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담양의 한 공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출신 하빏 유리엔토(20) 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산업연수생 신분이었던 그는 공장에서 잡일을 하며 받은 200만 원의 월급 대부분을 고국으로 송금했다. 3년간 돈을 모아 금의환향하는 게 목표였던 그의 꿈은 이 사고로 불거뿔이 되고 말았다.

베트남인 켄 디엔퐁(39) 씨도 아내와 다섯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와 신안 등지에서 선원으로 일했다. 하지만 지난 6월 흑산도 앞바다에서 조업 도중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기에 몸이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었다. 광주·전남 산업 현장에는 이들과 같은 외국인 근로자 1만

3446명이 일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사고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가 14명에 달한다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들이 꺼리는 위험한 공사장이나 일손이 모자라는 농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지역 경제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이제 그들이 없으면 산업 현상이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지역 문화와 환경에 익숙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투입되다 보니 차별과 편견 속에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 비참한 것은 그들이 사고사를 당한 후에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시신 인도 비용 탓에 가족의 품에 안기지도 못한 채 화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숨진 근로자들을 애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도 필요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건설사에 끌려다녀서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 1지구(포암동 일원)에 건립되는 아파트 규모를 '원안보다 266세대 늘어난 2370세대로 해 달라'는 우선협상자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광주시가 '업체 측에 과도하게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말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심의(중앙공원 1지구) 등 5가지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에서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자인(주)한양 측은 아파트 건립 규모를 계획보다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애초 최고 높이 지상 25층으로, 38개동에 걸쳐 2104세대를 짓기로 하고 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료를 받았으나 266세대를 추가 건립하는 변경안을 제출한 것이다. 금융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든 게 이유였다.

광주시는 이를 받아들여 용적률을 상향시킴으로써 더 높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분양가를 높이

는 방안 중 전자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주 아파트 분양가가 현재 3.3㎡(평당)당 1200만 원대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업체 측이 2000만 원대 초고가 분양가를 책정한 것도 모자라 불과 1년여 사이 추가로 260여 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변화한 것은 '금융비용 증가'(업체 측 주장) 하나뿐인데 단숨에 2600억 원(50명당 기준 1채 10억, 260채 추가 건립)의 엄청난 이익을 건설사에 안겨 주게 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런 방안이 당장 확정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 주택건설 사업승인 등 여러 심의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업자에게 이익을 남겨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난개발 위기에 놓인 공원을 최소한이라도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광주시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자유한국당이 다시 지역주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 장외집회에서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면에서 나서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차별하며 더 힘들게 하는 정권에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들이 뭉쳐서 반드시 심판하자"고 발언했다. 대중들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조장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또 "이정 나 원내대표는 '이정 권이 부울경 쪽에 인제'를 동용하는가 봤더니, 서울 구정장 25명 가운데 20명이 광주·전남·전북 출신이더라"고도 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현재 문재인 정부 내각에서 광주일고 출신은 이낙연 국무총리밖에 없다.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다. 또 서울 구정장들은 모두 직선제로 뽑힌 선출직이다. 정권의 인제 대응과는 주소가 완전히 다르다.

논란이 커지자 나 원내대표는 "탕평인

사를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설득력은 크지 않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서 최소한의 신뢰성은 물론 절제와 품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지역주의에 있어 '전범(戰犯)적 위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뿌리깊고 있는 군사정권에서의 노골적인 호남 차별로 지역감정이 태동되고 심화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촛불 민심에 의해 심판 받았음에도 과거의 관성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좀처럼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제1야당의 부재는 국민적·국가적 불행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치 원리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경제·안보·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난국이다. 지금이라도 제1야당이 바로 서야 한다. 그 시작은 나 원내대표의 지역주의 발언에 대한 진솔한 사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tu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리서 지구(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대 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체 육 부 220-0633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경 경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